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무명의 작용기제는

초원의 샘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아

막는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생애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모든 현상들을 실제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개체적 자아로서의 당신과 전체적 자아로서의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단순히 이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라는 것과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알아차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샘의 물줄기를 손으로 틀어막거나 돌로 눌러서 막으려 한다면, 몇 초만에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명상 중에 올라오는 강렬한 생각의 흐름을 막아보려 한다면 더더욱 실패할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마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접근 방법은 생각들이 어떤 것도 남아 있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애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의 수가 많더라도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방되는지 알다면 생각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행자가 기차 창밖으로 내다보는 마을이나 풍경이 기차를 느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풍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상할 때 어떻게 생각을 봐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禪 뮤직 비디오’ 를 아시나요

美 현각 스님, 인터넷에 ‘Mirror of zen’ 공개
선가귀감

“비디오는 한국불교계에 대해 던지는 도전입니다.”

<만행>의 저자 현각 스님이 9월 9일 인터넷에 ‘Mirror of zen’ (선가귀감)이라는 동영상 공개했다 (http://vimeo.com/73936096).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불교 포교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려고 만든, 염불과 음악이 감각적으로 가미된 일종의 뮤직비디오다. 16분 길이의 영상에는 스님의 일상이 담겼다.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선 사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독일 뮌헨에서 불이선원을 마련해 서양인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현각 스님이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의 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창 고민한 결과다.

사람들에게 불교의 수승함을 알리는 방법이 “14년 전에는 만행이라는 책이었다면 지금은 비디오” 라고 말한 현각 스님은 “나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선승의 하루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영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경계했다. 카메라가 뒤쫓는 건 ‘현각’이 아닌 ‘스님’이라는 것이다.

물에 떨어진 낙엽을 비추며 시작 되는 영상은 ‘만 가지 법이 한 가지로 돌아가되, 그 한 가지 법은 무엇인가’ 하고 뒤이어 나오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스님의 일상으로 대신한다. 낙엽귀근(落葉歸根), 잎이 지면 뿌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 불법은 순간과 찰나로 귀결된다는 것.



현각 스님이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택한 비디오. 감각적 영상이라는 뜻을 입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깨어있음에 대한 선의 진리는 수천 년 전 부처님이 말한 그대로다.

16분 분량... 염불·음악 가미

감각적 영상에 일상을 담아

한국불교 ‘禪’ 알리기 일조

해외 네티즌 반응도 뜨거워

동영상 속 현각 스님은 머리를 쥐고 예뻐 울리며, 사람들을 만나고 지하철에서 화두를 챙긴다. 길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종교학 교수와도 의견을 나눈다. 생각에 속지 않고 현재 깨어있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스님의 단순한 일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멋있다, 매력적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돈(Don)’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숨이 멎을 정도로 영감이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마이클’이라는 아이디를 쓴 네티즌 또한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다. 16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보는 내내 편안했고 감동적이었다”는 감상을 전했다.

세피아 톤의 영상미 넘치는 이번 영상은 크리스틴 슈미트너라는 다큐멘터리 겸 CF 감독이 연출했다. 영상 속 흡사 랩처럼 들리는 염불은 ‘신묘장구대다라나’로 중간에 삽입된 ‘움마니반메후’와 함께 스님이 직접 염송했다.

수좌회 농성 중단 산사로 돌아가다

조계사 정진단 16일 철수

‘자승 스님 재임 포기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묵언정진을 해 온 전국선원수좌회가 9월 16일 조계사 천막 정진단을 철수기로 했다.

전국선원수좌회대추위원회(위원장 석곡)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조계사 천막정진단에 앉아 단식과 묵언정진으로 생사대사의 본분사를 물음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는가를 고뇌했다”며 “이제 정의와 비판을 뒤로한 채, 시비의 대응을 접고 본분의 대기에 충실하기 위해 다시 산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좌회는 “우리의 용맹정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라도 조계사의 일탈에 준엄한 호법의 주장을 준비할 것이고 두 눈 부릅뜨고 마의 종언과 원의 회생을 함께 지켜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중앙총회의원 30명, 임시회 소집 요구

심우 스님 등 16일 서류 제출

심우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30명이 오는 9월 30일 제195차 중앙총회 임시회를 개최해달라는 골자의 종회 소집요구서를 16일 제출했다.

소집요구서에 따르면 이들 의원 스님들은 주요 안건으로 △제34대 총무원장 공명선거의 건 △총무원장, 장주 스님, 각원 스님 각서 의혹의 건 △적광 사미 폭행의 건 △신동아 9월호의 진상의 건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표 발의자인 심우 스님과 도정 스님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승 스님의 후보 수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심우 스님 등 30명의 종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사퇴 후 선거에 임할 것 △밀약서, 도박장 개설 등 모든 의혹을 밝힐 것 △종단의 위상 실추를 통감하고 발로참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번 총회 개최의 배경과 서명 인원의 계파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총회 소집에 서명한 30명 스님들의 계파를 묻는 질문에 심우 스님은 “계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계파에 소속된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심우 스님은 “향후 개최 여부와 일정은 모두 의장단에 일임했다”며 “정치색을 떠나서 봐달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새 역사 쓴 소임자 되도록 혼신”

자승 스님, 34대 총무원장 후보 추대 수락 입장 밝혀

불교광장의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된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이 수락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승 스님은 9월 1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추대를 수락하고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된 소회에 대해 말했다.

자승 스님의 수락 연설 말머리는 사죄였다. “지난 4년 간의 성원과 경책을 뒤로하고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힌 자승 스님은 “저의 출마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 줄 알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부대중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자승 스님은 “결자해지 기사자 담임기종”이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오랜 시간 깊이 숙고해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단을 내린 지금 지난 허물을 대신해 종단과 한국불교를 역사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는 다짐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린다. 종단 중흥과 불교 발전의 발판을 확고하게 세우고 ‘조계종의 새 역사를 쓴 소임자’로 기억되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스님은 “지난 4년이 역사적 책임의 일단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통해 ‘한국불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술회하며 “제가 또 다시 책임을 맡는다면 아쉬운 과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각 교구가 수행, 포교, 전법을 총괄하는 자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종단과 사찰의 재정 투명화, 비구니 권익 및 참종권 확대 등도 심도있게 검토해 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을 둘러싸고 세간에 뿌러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입장으로 내뱉었다. 자승 스님은 “그동안 오로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일념으로 여러 근거없는 낭성들에 묵묵



히 대처하며 인욕했다”며 “그러나 단언컨대 소납에게는 중도를 실망시킬 그 어떤 일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앞으로 종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2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개강 :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성센터3층)
042) 255-0734~5